

##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함께 해주신 기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8차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 총회를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총회는 1986년 제3차 서울대회 개최 이후 만 28년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제3차 총회 개최와 더불어 KCRP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이후 KCRP는 다 종교 사회인 한국에서 종교간 대화운동을 이끌어 오면서 현재와 같이 뿌리내리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아시아의 최대 종교간 대화기구인 ACRP는 지난 2002년 인도네시아 총회에서 한국의 김성곤 의원이 사무총장에 선출되어 12년간 이를 이끌어 왔고, 이로 인해 국제적으로 한국 종교계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했습니다. 이런 흐름에 맞추어 KCRP는 아시아 각국을 지원해 왔습니다.

파키스탄, 필리핀, 방글라데시, 베트남, 파키스탄, 이라크 등에서 평화 교육센터 건립 등 각종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이제 한국종교계는 아시아에서 리더국가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종교계가 이번 ACRP 총회를 유치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런 배경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총회가 남북 종교인들의 염원을 담아 공동 개최로 추진하였으나 안타깝게도 한반도정세로 인해 공동개최가 무산되어 아쉬움이 큼니다. 그러나 ACRP를 통한 남북종교 교류는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고, 이를 통해 남북의 화해의 물꼬를 트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제8차 아시아종교인 평화회의 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아시아 종교지도자들의 뜻을 한데로 모으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통해 아시아의 평화환경을 다지고 나아가 세계평화를 이루는 기초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서 이번 총회의 의미와 노력을 잘 살피주시기 바라며,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종교문화를 바탕으로 아시아의 종교지도자들께서 보여주시는 조화와 평화의 지혜를 소중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로 인해 제8차 총회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